

우간다에 있다가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감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활한 대륙에 뻗어있는 Highway 입니다. 지뢰밭을 피해가듯 운전해야 하는 우간다의 도로에서 운전하다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우간다도 이런 Infra 를 갖출 날이 오겠지 소망합니다.

6 월 3 일 Williams Town 에서 있었던 막내 찬주



졸업식에 온 영주와 덕주도 만나 해후하고 오랜만에 아이들과 만나 잠시나마 기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둘째 덕주는 비행기표싼 것을

끊으려고 찬주 학교에서 차로 2 시간 남짓한 Boston 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Bus 를 타고 오겠다고 해서 저와 엄 선교사가 보스턴으로 가서 덕주를 데려왔습니다. 영주와 덕주를 모두 보내고 찬주의 4 년 학교생활에 썼던 것들 중 선별된 책들과 짐들을 겨우 렌트카에 싣고 저와 아내 엄 선교사와 찬주는 Wisconsin 으로 향했습니다. 1000 mile 이 넘는 거리를 셋이 교대로 이틀을 운전하여, 늘 집을 개방하여 맞아주시는 권수연 집사님 가정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습니다. 17 년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권 집사님은 찬주가 학교 부근의 숙소로 이동하기 전까지 찬주 짐을 흔쾌히 맡아 주셨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집사님 가정의 장남인 Mory 가 이번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고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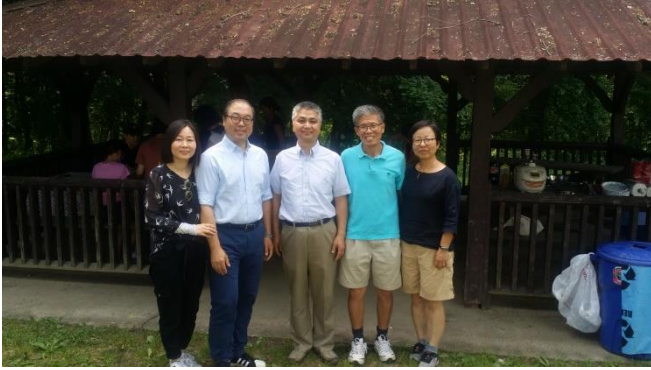
6 월 8 일에는 이전 교회를 충성스러이 섬기셨던 집사님들 중의 한 분인 이종민 집사님 가정에서 저녁 초대를 하셔서 그 곳에 가서 노은진 집사님이 준비하신 화려한 저녁을 함께하며 즐거운 만남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사님 가정의 막내 인호는 가지고 놀던 많은 장난감 차들을 모아 선교지 어린이들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6 월 9 일은 찬주가 약 5 년 동안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게



될 4 만의 청년들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젊음이 넘치는 Univ. of Wisconsin, Madison campus 타운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6.10 일에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10 시간을 운전하여 Missouri 에 사시는 큰 누님 댁으로 도착했습니다. 선교지에 오기 전에 무게 때문에 가져 오지 못하고 맡겨 두었던 책들 중 필요한 책들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누님 댁에서 이틀 밤을 묵고 후원 교회이기도 한 Columbia 한인 제일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한주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목사님은 제가 공부한 대학교 학과 선배도 되시고 사모님은 엄 선교사의 대학교 학과 선배도 되시는 기이한 인연이기도 했습니다. 12 일 누님과 매형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16 일 Pittsburgh 에 도착하여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의 숙소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저녁은 선교부 담당하시는 김 강 장로님이 대접해 주셔서 담임하시는 김현철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근처의 한인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목사님은 주일 오전 예배 강단을 흔쾌히 맡겨 주셔서 다음 날 주일에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연규엽 집사님이 맡고 있는



우간다 셀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김은주 집사님 환송 모임에 참석해서 우간다 셀의 셀원들과도 함께 반갑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찬주는 다음 과정까지 세 달의 휴식 기간 동안 두 달은 우간다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디씨에서 셋이 함께 만나기로 해서 찬주는 시카고에서 출발하고 우리는 Albany 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찬주는 시카고에서 잘 출발하였는데 우리는 와야 될 비행기가 기상관계로 알바니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4 시간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는 Washington D.C.에서 우간다 가는 비행기를 놓치게 되고 찬주만 혼자 우간다에 도착하겠다 싶어 급하게 찬주에게 연락하여 찬주가 Washington D.C. 에서 그 다음날 비행기편을 rebook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찬주를 Dulles 공항에서 만나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다 못해 추웠던 공항에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편으로 Brussels 를 거쳐 우간다에 도착하였습니다. 날씨로 인해 미국 동부와 남

부의 비행기편들이 많이 취소되어 공항에서 비행기편 조정하는 줄이 그렇게 긴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자는 등 마는 등 공항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찬주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주님의 은혜로 우간다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간다 Entebbe 공항에서 짐을



찾는데 찬주의 짐이 도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찬주의 옷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이었고 하나는 제 책 box 였습니다. 알아보니 미국의 Dulles 공항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취소되고 스케줄이 변경되는 와중에 짐을 부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살고 있는 곳까지는 차로 6 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라 다시 오기 힘들어서 일단 사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돌아왔는데 감사하게 두 짐이 며칠 후 이 곳으로 잘 배달되었습니다.

비행기 도착이 밤 시간이라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All Nations Theological Seminary 안의 아는 선교사님 가정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아침, 필요한 시장을 보고 오후에 출발하니 집에 8 시 경이 되었는데 사방이 어둠에 덮여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관리하는 Monday 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5 마리 강아지 중에 한 마리가 며칠 전에 집 밖으로 나갔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개에 물려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큰 대장(대갈장군)이가 아깝게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토요일) 아침 강아지들을 보러 가보니 한 마리(흑진주)가 어디가 아픈 듯이 자꾸 숨으려 하며 “깨갱, 깨갱”합니다. 급히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오기 전에  
 흑진주는 꽃밭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8 마리에서 5 마리, 5 마리에서 3 마리로  
 강아지들이 줄어가니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1 마리는  
 어느 가정에 주기로 해서 2 마리가 남게 되지만 남은  
 강아지들을 이제부터 잘 키워야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해봅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니 갑자기 집 밖에서 왁자지껄한  
 동네 아이들 소리가 납니다. 나가 보니 동네 아이들이  
 기다리던 축구를 하고 싶어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잔디기계가 고장나서 잔디를 자를 수가 없어서  
 축구를 하고 싶어 온 아이들에게 지금은 잔디가 길어  
 하기 힘드니 다음 날 오후에 하자 돌려 보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4 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 2 시 40 분 정도가 되었는데 동네  
 아이들 선발대 몇 명이 1 시간 20 분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4 시에 오라고 보내기가  
 안쓰러워서 “나가마”하며 운동장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급히 준비하고 나가서 아이들과 warm-up 을 시작해서  
 미니축구를 시작하니 점차 동네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총 18 명이 모였습니다. 3 주  
 쉬었는데도 아이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어 구름 한 점 없는 태양빛 밑에서  
 축구를 시작하여 6 시 경에 마치니 얼굴이 술취한  
 사람처럼 벌겍게 타버렸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중고등 학교 아이들과 함께 뛰니 나 역시도  
 즐거웠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의 좋은 제자들  
 삼아야겠다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우간다 도착하자마자 무리를 했는지 3 시간 이상을 뛰니  
 다리 근육 몇 개가 늘어난 듯 당겨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고 나니 괜찮아졌습니다. 아직은 괜찮구나  
 생각하며 아직도 뭘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봅니다: “70 까지는 축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지  
 모르지만 말이죠.

화장실 공사는 끝났지만 우기에 습기가 차서 못했던  
 페인트칠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센터와 사택과 대문  
 벽도 페인트를 칠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축구선교와 영어교습 그리고 8 월 하순에  
 2 학기가 시작되는 목회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곳에

주님의 좋은 제자들을 만들고 지역 교회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며 복음이 확장되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간다와 아프리카와 세계 선교에 동참하신  
 교회들과 후원하시는 분들 모두 위에 한량 없으신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교의 요충지 우간다에서 안승준, 엄옥희 선교사 드림.

## 기도제목 prayer topics

1.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증거 되는 삶 위해 Pray that Christ  
 would dwell within us in His fullness and be testified  
 through us as we live in Christ.
2. 우간다교회가 우간다를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Pray that Ugandan churches would  
 change Uganda and be the center of world mission.
3. 카징고 성경대학이 지역 사회 계발과 복음 확장의 통로가  
 되도록 For Kazingo Bible Institute to be a channel of  
 developing the community and spreading the gospel.
4. 목회자들 신학훈련과 청소년과 어린이 축구선교와 영어  
 지도 위해. For the theological training for the local pastors,  
 soccer mission for youths and children, and English  
 teaching for children, and youths.
5. 자녀들(영주, 덕주, 찬주)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를  
 알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학업(영주의 대학원, 찬주의 9 월  
 박사 과정)과 직장생활(덕주)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한국에서 후원 관리를 해 주시는 안 선교사의 부모님과  
 미국에 계신 엄선교사의 어머니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Pray that Christie, Timothy, and John may grow in  
 knowing Christ in close relationship with Him and make  
 Christ known through them. And pray for Christie's  
 graduate study, Timothy's work, and John's new study at  
 Ph.D program and for the spiritual and physical health of  
 the parents in S. Korea and in U. S.
6. 선교지에서의 운전 중의 안전과 주변의 정세로부터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For the safety from driving and political  
 and social surroundings
7. 안 선교사의 어머니의 왼쪽 팔과 다리의 완전한 회복과 눈의  
 회복 위해. For a complete recovery of missionary Ahn's  
 mother's left arm and leg, and her eyes from cerebral  
 infarction.
8. 엄 선교사의 사역과 새로운 Online MA-TESOL 과정 위해.  
 For missionary Um's Literacy ministry and Online MA-  
 TESOL PROGRAM.